

“마음의 쓰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되었지요. 1981년 12월 네팔 중정 아미타 대승정이 국제불교 아카데미학회 회장인 김광택 박사에게 국제불교에 대한 우의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기증한 것입니다.”

지원 스님은 경주와 인연이 있어 갈 때마다 석굴암 부처님을 진경했다. 석굴암 부처님 앞에만 서면 신심이 더욱 도타워지고 자신의 초발심이 오롯이 되살아나는 듯해서 대덕사 법당에 모시게 된 것이다.

지원 스님은 노획부득과 달탑박박의 이야기가 서려있는 경남 의창군 북면에서 태어나 열다섯 때 고향 집을 등지고 불도사 극락암 선원으로 출가하였다. 경봉 조실스님을 모시고 삼년간 불목하니처럼 나무하여 불을 지피기도 하였으며 공양간에서 밥 짓고 채공노릇하면서 행자수업을 하였다. 지원 스님은 어떤 일을 해도 힘들다는 생각 없이 하였다고 한다. 출가의 뜻을 참선수행에 두었기에 행자생활을 마치고 전국의 선방을 넘나들었다. 범어사, 해인사, 동화사, 통도사, 부석사, 도리사 등이십여 년 동안 전국의 선방을 두루 다 거쳤으니 차라리 머물지 않았던 선방을 꼽는 것이 더 쉬울 듯하다.

지원 스님에게 법을 전해주시는 분은 선

師/ 부모도 나의 친한 이가 아니다(父母非我親/ 누가 가장 친한 자이고(誰是最親子)/ 네 신하가 어둡지 않다(四臣不昧也).

여기서 네 신하란 ‘안이비설(眼耳鼻舌), 보는 눈, 듣는 귀, 냄새 맡는 혀, 맛보는 혀’를 가리킨다.

설봉 스님은 제자인 지원 스님에게 전법계를 내렸다.

금산의 큰 지혜, 근원을 얻는 자는 불도를 이루나니(金山大智源 得者成佛道)

예전부터 인친의 스승들이 이것으로 중생을 건지니라(上來人天師 以此度衆生)

이렇게 해서 지원 스님은 설봉 스님의 법제자가 되었다.

“설봉 스님은 시(詩)에 뛰어난 분이요, 선문에 뛰어난 분입니다. 선문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선문촬요>를 오십 년 전에 우리 스승이 현토해서 범어사, 불국사에서 가르쳤어요.”

설봉 스님이 현토한 <선문촬요>를 가지고 지원 스님이 십년에 걸쳐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펴냈다. 지원 스님은 <선문촬요>를 펴내면서 ‘과거칠불(過去七佛)과 삼십삼조사의 전법계와 태고보우 선사, 불일보조 선사, 경희성우 선사의 행장을 접부하였다. 또 그뿐만이 아니



설봉스님 뜻 받들어 ‘선문촬요’ 출간

“禪은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닦아야”

(禪)과 교(敎)를 두루 섭렵한 설봉(雪峰) 학몽(鶴夢 1890~1969) 스님이신데, 설봉 스님은 만공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고,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의 법제자다. 그러니 지원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잇고 있는 것이다.

하루는 설봉 스님의 상당법문이 있어 대중들이 법당에 모였다. 그때 설봉 스님께서는 법상에서 주장자를 높이 들어 보이면서 한 마디 물었다.

“이 주장자를 보느냐? 대중들은 한마디 일러라.”

대중들은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잠잠하 기만 한데, 그때 지원 스님이 일어나서 “지나갔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설봉 스님은 “다시 한번 일러라”하고 재촉했다. 지원 스님은 또 다시 “지나갔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설봉 스님께서는 “아니다”하고 딱 잡아 떼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지원 스님은 다시 일었다. “진언(眞言)은 불기심(不起心)입니다.”

이 말에 설봉 스님은 주장자로 법상을 내리치면서 대중들을 향해 일었다.

“백년삼만육천일이 반복해서 돌이켜 보니 원래 자기더러(百年三萬六千日 反復 只者爾).”

지원 스님의 공부가 무리되었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때 지원 스님은 30대였다고 하니 약관의 나이에 깨우쳐 버린 것이다. 지원 스님은 스승님께 오도송을 지어 바쳤다.

석가도 나의 스승이 아니요(釋迦非我

師) 달마 대사의 <반야심경>과 <오성론> 보조 국사의 <원돈성불론> <오종가풍> 육조대사의 <자성진불계>와 승찬 대사의 <신심명>과 영가 대사의 <중도가> 등을 참부하여 발간하였다. 지원 스님이 펴낸 <선문촬요>는 그야말로 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과서임에 틀림없다.

“선은 배울 것 없다. 불립문자 언어도 단 이라고 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사바세계는 음성교체라,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십전십이라 해도 말을 안 하면 어지 서로를 알 것이며, 책을 안 보면 앞서 간 이들이 설한 법을 어찌 알겠어요.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닦아야 합니다.”

선을 두고 다들 어렵다고 하기에 그 연유를 물었다. “자기 경제대로 말을 하니가 선이 어렵다고들 하지요. 선, 이 자리는 쉽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어려워서는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 스님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 <선문촬요>를 우리말로 펴냈고, <설봉학공대선사 선문염승법문집>과 더불어 470쪽에 이르는 스승의 법어집 <설봉대전>을 펴내었다. <설봉대전(雪峰大畧)>은 후학 참선수행자들에게 큰 지침이 되고 있다 하니, 불가에서 흔히 하는 말로 지원 스님은 ‘법값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너그러우면 법계에 두루하고 좁으면 바늘 끝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라 하니 마음의 쓰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행할 일이다.

문운정(수필가 본지는설위원)

지원 스님 (대덕사 달마선원 조실)

1946년 범어사에서 호월(湖月) 스님을 은사로, 동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1960년 해인사에서 상월(霜月)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범어사, 해인사, 동화사, 통도사 극락암, 부석사, 도리사, 문수사(울산) 등 전국의 선원에서 20여 년을 참선수행하였다. 설봉 학몽 선사로부터 전법계를 받았다. 부산 대각사, 범어사 내원암, 강화도 보문사, 마곡사 주지 소임을 맡아 일하였다. 범어사 안양암, 계명암, 내원암 등의 선원장 소임을 맡기도 하였다. 부산대덕사를 창건하였고, 현재는 대덕사 회주 및 달마선원 조실이다. 편·저서로는 <우리말 선문촬요> <설봉대전> <설봉 학몽 대선사 선문염승법문집> 등이 있다.



지원

금강산 중허리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덕사 법당은 ‘적멸보궁’이라는 현판을 달고 있어 호기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그리고 대덕사 적멸보궁의 문을 열어 제치는 순간 경주 석굴암 부처님이 대좌하고 있어 출칫 놀라게 된다. 적멸보궁에 불상이 모셔져 있는 것은 예외로 치더라도 석굴암 부처님이 어떻게 여기를 오셨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갈 만큼 규모가 크고 위엄이 있다.

올해 세수가 일흔 아홉이신 지원 스님의 첫인상은 포대화상을 연상케 할 만큼 따사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웃으실 때 웃음을 또한 호탕하고도 넉넉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덕사 달마선원에서 재가자들과 같이 동안거 하안거 결제를 하여 마음공부를 이끌었다. 올해는 지원 스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결제를 하지 못했다. “육신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픈면 아픈 대로 그저 수용하는 수밖에

없지. 마음에 막힘이 없으면 생로병사에 끄달리지 않아요.”

적멸보궁의 연유부터 묻자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에 대한 내역이 적힌 문서를 한 장 건네주었다.

“옛 카필라 궁터 고분에서 석가모니 사리를 모신 석함이 발견되었어요. 그게 1898년이었어요. 석함에는 팔련과 함께 영동한 빛을 띤 몇 개의 사리가 모여져 있었는데, 그중 1과를 여기 대덕사에 모시게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보현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요품

복상불소영가량장전식식사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대) 42 × 65cm

올마니반 메홍족자
60 × 20cm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8mm × 10mm × 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 × 16 × 16cm 158,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품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학반을 마음껏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생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민족의선 “열침”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조리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옥각돌**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배가 냉하게나 손, 발이차차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임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형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미라기기 05-0626호 인증

하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출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약리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307 정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